

# 금남로에서

김동영



500억원대의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전남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면 다행이다. 허 회장을 비롯 대주그룹 임·직원들은 뼈아픈 자성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원래 선하게 태어났지만 자신의 실수 및 부주의와 주변환경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되므로 죄로 인해 사람 개인까지는 미워하지 말라는 의미일 것이다.

## ‘선처’ 호소 한 목소리

허 회장의 혐의가 무겁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조세포탈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이 형량협의를 추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혐의 자체가 결코 가볍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

원의 고뇌는 짧지 않은 영장기각 사유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도 허 회장이 구속될 경우 지역경제는 물론 종사자와 근로자들의 신분상 지위와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당성을 갖기 힘들다

## 지역사회와 대주그룹

고 밝혔다. 법원이 관용을 베풀 것은 지역사회 여론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 광주상회의와 광주·전남경총, 광주·전남무역상사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지회 등 경제계는 호소문을 통해 허 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지역사회가 깊은 관심을 갖고 공동대처한 것이다.

여론의 큰 흐름은 죄는 묻되 기업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납세의무를 어긴 행위는 엄정 처벌해야 하지만 대주그룹이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

여해은 공로를 감안해 허 회장이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은 필요하다는 논리다.

광주·전남을 주요 사업기반으로 한 대주그룹은 체계순위 52위의 중견기업이다. 계열사가 30여개에 달하고 연매출 2조2천억원, 고용인원 5천여명에 1천500여개의 협력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

이런 현실에서 그룹 총수의 부재상황이 발생하면 그룹은 물론 지역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장 금융환경이 경색돼 자금난이 심화되고 하청업체

등 관련기업의 연쇄부도와 종사자들의 실직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분양 아파트 입주 대기자 1만여 세대와 임대아파트 입주인 3천여 세대의 피해는 말할 수 없고 총여신 6조4천억원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손실도 불가피하다. 고용 창출 3만명, 매출 7조원대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해남의 대한조선소 건설 역시 차질을 빚게 되고 10여개 외국 금융기관과 진행중인 6천억원대의 외자유치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경제계 등이 선처를 호소한 것은 특정인을 두둔해서라기보다는 기업을 살려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

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위기는 대주그룹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없지 않다. 임직원들이 지난주 성명을 통해 인정했듯 그동안의 크고 작은 과오와 불찰이 오늘의 사태를 빚었다고 할 수 있다. 성장과 발전에 치중한 나머지 지역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악성투머가 무성하게 나온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 사회적 책임 인식해야

대주그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환골탈태를 선언했다. 지역사회에 빛을 진만큼 협력업체와의 상생관계 구축 등 새로운 기업문화로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과의 협력 및 지원 확대, 지역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등도 포함됐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거나 각종 음해에 시달려온 기업환경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회적 책무에 충실하려면 윤리경영과 투명경영, 환경친화적경영은 필수적이다. 대주그룹이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사·도민들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향토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사·도민들도 예정을 갖고 대주그룹의 변화상을 지켜보기를 바란다.

/논설실장 dykim@kwangju.co.kr

## 시설

### 지역 전문건설업 경영난 대책 서둘러라

최근 광주·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등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한다. 지방 건설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자금난이 심화된다. 지난해 과당경쟁에 따른 실적 감소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내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이 풀리게 돼 전문건설업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지난해 말 현재 전남지역 전문건설업체 수는 총 2천299개에 달한다. 이는 2005년에 비해 75개가 늘어난 수치다. 반면, 지난해 전남 지역 전문건설업의 공사실적은 전년보다 5.5%가 감소한 2조3천908억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경영입찰에 부처진 공사발주액은 전년에 비해 무려 22% 급감했다. 업체 수는 증가하는데 수주 공사량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수익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다. 따

라서 일반 건설업체와의 상생관계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일반건설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지나친 공사대금 후려치기와 장기어음 발행 등으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전문업체의 상생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일반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의 어음 지급 비중을 낮추고 현금지급을 확대하는 등 공생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의 직불제 확대와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완화 등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지자체 등 공사 발주기관은 전문업체의 참여가 필요한 전문공사의 경우 반드시 '전문업종'으로 발주하는 등 전문건설업의 시공영역을 보호해 줘야 할 것이다.

전문건설업체도 최근의 경영난이 업체 수 과잉에 따른 과당경쟁에서 빚어진 측면도 있는 만큼 부실업체 퇴출 등 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 건강보험료 내년 또 인상...국민만 봉인가

국민이 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지난해 3.9%, 올해 6.5% 인상에 이어 내년에는 6.4%가 오른다. 3년 새 무려 16.9%나 인상된 것이다. 혜택은 줄어드는데 인상만 되풀이하는 재정 악순환으로 결국 국민만 덩그러니 쓴 꼴이다.

내년 건강보험료의 실제 인상은 임금 인상에 따른 자연 증가분까지 감안하면 11~12%에 이른다. 더구나 병원 입원환자 식대 50% 본인 부담, 6세 미만 아동 입원비 10% 등 혜택은 오히려 축소된다. 정부가 건강보험제정 운용을 잘못된 책임을 보험료 인상과 건강보장 축소라는 순수익 방법으로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이번 보험료 인상 조치는 예상을 웃도는 급여비 지출 때문이다. 지난해 6월부터 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제공하는 밥값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고 6세 미만 입원아동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했다. 이는 시행 초기부터 선심성 정책으로 시가

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결국 1년6개월 만에 재정이 구멍이 뚫려 선포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부의 정책 수준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렇게 보험료를 올리고 보장 범위를 축소한다고 해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 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8.6%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내년도 적자를 면하기 어렵다.

건강보험제정 전진화를 위해서는 지출 구조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체계 개선과 전문직 및 자영업자의 소득과약을 제고 없이는 재정의 건전성을 기대할 수 없다. 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도 시급하다.

정부는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부담을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해선 안 될 것이다.

## 無等鼓

몇 년 전, 줄기세포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인터넷엔 〈황우석 용어 사전〉이 등장했다. 이 사전에 따르면 '인위적인 실수'는 '조작'이며 '임천기술'은 '국민·기자·전세계를 뺄 가계 속이는 잡술'로 풀이됐다. 미국 소설가 비어스(Ambrose Bierce)가 19세기 초의 부패상을 해학적으로 고발한 〈악마의 사전〉(The Devil's Dictionary)을 본뜬 것이다. 당시 그는

최근엔 책 읽는 네티즌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시민독서프로젝트'(www.jisiknet.com)가 〈불안 사전〉(不安辭典)을 만들고 있다. 이곳에서 '미니 스커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노출하여 해소하는 방법'이며 '연애'는 '최고의 사치품 중 하나지만 취업을 위해 당분간 유보하는 것'이라고 변질했다.

## 불안 사전



'장관'(長官)은 '책임이 가벼운 공무원. 중요한 자격은 거만을 떨어야 하는 것'이라고 조롱했다.

한국의 10대들 사이엔 〈아이두 사전〉이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청소년 포털사이트 '아이두넷'(www.idoo.net)이 개설한 코너엔

'학원'은 '한국의 가계 수입 대개가 흘러 들어가는 곳'이다. '가족'은 '불안을 감추기 위해 숨어드는 어지트'이고 '처우개선'은 '노동하는 자들의 단결을 통해서만 사용자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는 슬슬한 의미를 부여받았다.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이제 트랜드로 내려 있다. 'www.moe.go.kr : 국내 최대 청소년 유해사이트'는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이며, '여백의 미'는 '서술형 문제지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뜻한다. 교육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일들을 나름대로 눈높이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현상이 우리 사회의 모순에서 비롯되고도 여러 현상을 반영한다는 게 안타깝다. /정기태 사회1부장 meonsan@kwangju.co.kr

## 테마칼럼

이성제

정치프리즘

경제의 눈

문화칼럼

## 12월19일 투표장에서 만나다



김행

비록 '양심없는 후보'들이 나왔다하더라도, 유권자들만은 '양심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지연, 학연, 사익에 휘둘리지 말고, 참, 어려운 선택이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오늘은 2007년 대통령선거 D-26이다.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누굴 뽑아야 하나? 아무리 봐도 뽑을 사람이 없다. 필자만의 얘기가 아니다.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아예 12월 19일 (수)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내쳐 놓겠다는 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네 선거관에서 뽑을 사람이 없다는 게 어찌 어찌 오늘의 일인가? 모든 선거라는 것이 '최선의 후보'를 뽑으면 가장 좋겠지만, 대개 '차악의 후보'를 뽑는 게임이다. 그런데 이번엔 '차악도 없다'는 것이다. 왜냐? 도대체 '양심성' 꺼려 투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최소한의 엄치라도 갖췄으면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선거인데, 후보에게 "도덕성" "능력" 같은 거창한 요구는 다 포기한다 해도 최소한의 '인간적 양심'은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를 보면, 'BBK'까지 갈 것도 없이, 자녀 위장 전입, 위장취업도 모자라 운전기사까지 위장취업을 시키고, 허위소득 신고나 탈세 등을 조차못 한창 쓰듯 하고 싶었으니, 대체 이 분이 대통령이 되면 누가 세금을 제대로 내고 살 것인가?

당원명부 박스폐기 의혹 속에 후보가 된 통합민주당의 정동영 후보는 지난 5년간의 실

정에 대한 석고대죄 없이 '범여권후보 단일화'에만 매달리다, 창조 한국당의 문국후 후보에게 "국정실패 책임을 지고 당신이 사퇴하라"라는 면박만 받았다. 그런 그 분께 투표하면, 지난 5년간의 실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물 수 있던 말인가?

그렇다면 무소속 이회창 후보? 그는 현재 여론조사 2위의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출마 자체가 변칙이다. 진짜 출마를 원했다면 당당히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경선에 임했어야 한다. 대체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후보가 되었으면 출마를 안했을 것"이라는 그의 괴변을 어떻게 납득해야 하나? 어떤 변칙이라도 자신에게 '보수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라는 명분으로 바뀌는 분께 투표하면, 대한민국 법 질서는 누가 지키란 말인가?

'경제대통령'도, '행복대통령'도, '보수대통령'도 다 좋은데, 그 이전에 후보가 최소한의 엄치라도 갖춘 인물이었으면 싶은 것이 유권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오죽하면 "동네 반장선거에도 못 미치는 선거"라는 자조가 나올까.

이 같은 분위기는 유권자들만의 정서일까? 이명박 캠프의 상임고문인 C 씨는 "동네 창피해서 차마 이 후보를 뽑아달라고 말하고 다닐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정동영 캠프쪽도 마찬가지. 측근 몇몇을 빼곤 다 손 놓고 있다. "유권자들이 싸늘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하다"고 고

백했다. 이회창 후보를 돕는 L씨는 "달걀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후보 신분이 걱정될 정도다. 그래도 지지율이 20%가량 나오는 것이 신기할 정도다"고 자조했다.

### 여론조사 너무 믿지말라

여론조사, 너무 믿지 말라. 요즘 여론조사 전문가들을 만나면 전화조사시 100통화를 걸면 평균 11명 정도가 응답을 해준다고 한다. 다른 선거 때 응답률이 30% 내외였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라는 것이다. 유권자들의 심사가 보통 틀어진 것이 아니다.

서글픈 당위는, "그래도 투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5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여서다.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 필자도 못 정했다.

다만, 마지막 순간까지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무겁게 지켜 볼 것이다. 비록 '양심없는 후보'들이 나왔다하더라도, 유권자들만은 '양심적'으로 투표해야 한다. 지연, 학연, 사익에 휘둘리지 말고, 참, 어려운 선택이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졌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12월 19일 우리 모두 투표장에서 만나다."

〈전 중앙일보 기자·정치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 칼럼

정용민



###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행복을 느낀 하루

병원에서 근무하다 보면 조그마한 진찰실 안에서도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된다. 그 안에서 감동과 사랑, 때로는 훈훈함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날도 젊은 필리핀 여성이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아기를 업고 들어왔다. 한국말이 서툰 아내를 대신해 남편은 아내의 증상을 설명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아내가 새벽부터 배가 아팠고 점점 통증이 심해져 집 근처 시골 의원에 찾아가 주사까지 맞았었다. 하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서둘러 광주로 바로 올라왔다는 것이다.

남편은 새벽 내내 아파하는 부인에게 해 줄 것이 없어 마음이 무거웠던 모양인지 걱정하느라 잠 한숨 제대로 못잔 듯 몹시 초췌한 모습이었다.

우선 부인과 대화하기가 어려워 이학적 검사를 먼저 했다. 배를 만져보니 급성 충수염(맹장염)이 의심됐다. 초음파 검사 후 수술을 결정했고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

수술이라는 말에 안절부절 못하는 남

편의 손을 아내는 꼭 쥐며 걱정하지 말라는 듯 따뜻한 눈길을 남편에게 보였다. 아직 말은 통하지 않지만 이 부부에게서 애절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50세 중년 여성의 유방조직 검사 결과가 암으로 나왔다. 이를 설명해주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오실 것을 권유했다.

몇 시간 후 멋진 외투와 양복 정장으로

한껏 멋을 낸 중년의 부부가 진찰실로 들어왔다.

"부인의 검사결과가 유방암으로 나왔습니다."

암이라는 말에 얼마나 상심이 클까 하는 마음에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수심이 가득 한 얼굴을 할 줄 알았던 남편은 미소를 머금었다.

진찰실 밖으로 나갔던 남편은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들었던 보험의 보

험금이 얼마인지 담당자와 액수를 상담했다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부인에게 치료 방법을 설명하던 중에도 미소 띤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경제적으로 여유있어 보이는 부부인데도 암 판정을 받고 고풍스러워 하는 아내를 걱정하기보다는 보험금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의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도 더 큰 집이 눈에 들어오고, 아무리 비싼 차를 타고다니더라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더 비싼 차가 보이는 모양이다.

수술을 마친 뒤 입원실에서 필리핀 아내 곁에서 두 살 된 아기와 함께 초췌한 모습으로 정성스럽게 아내를 간호하는 시골 아저씨의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숙이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행복이라는 것을 이끌어 주는 가장 큰 힘은 돈이나 학력이 아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하루였다.

〈동아병원 1외과 원장〉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www.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제작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F A X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회2부 2200-690	사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